

집중호우 대비 비생대응체계 돌입

전북교육청, 상황관리 전담반 구성 기상 상황 상시 모니터링... 학교시설 점검·재난 대응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호우 예보에 따라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학교 안전관리 강화와 피해 상황의 신속한 보고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시설 피해나 학사일정 조정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영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신속히 투입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교육지원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김제 청의예술미래공간 '디움'에서 관내 중학교 1·2학년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중학생 예술융합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극·뮤지컬로 배우는 영어

김제교육지원청, 중학생 대상 예술융합 영어캠프

김제교육지원청이 연극과 뮤지컬을 활용한 체험 중심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특별한 영어캠프를 마련했다.

김제교육지원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김제 청의예술미래공간 '디움'에서 관내 중학교 1·2학년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중학생 예술융합영어캠프(Theater in English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연극과 뮤지컬을 영어 학습과 접목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업 능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일정에 맞춰 하루 6차시 과정으로 진행된다. 아이스브레이킹과 팀빌딩을 시작으로 노래와 리듬을 활용한 영어 뮤지컬 장면 만들기 이야기 분석과 캐릭터 개발 영어 대본 읽기와 무대 동선 구성, 협업을 통한 영어 뮤지컬 제작 및 리허설, 모둠별 최종 공연과 소감 나누기까지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김제의 대표 문화유산인 벽골제에 전해지는 '난야난자' 설화를 영어로 재구성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영어 학습과 지역문화 이해를 함께 높이는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

김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대본을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범 교육장은 "학생들이 직접 영어 대본을 만들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경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교육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협력하는 인성과 창의성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직업계고 학생 기업현장 탐방·채용 연계

전북교육청, 기업탐방 페스타

세 차례 걸쳐 운영... 10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현장 탐방과 채용을 연계한 새로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연계 기업탐방 페스타'를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교육청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은 기업 발굴과 취업 지원, 참여 학생 사후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페스타는 기존 취업박람회의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기업탐방방부터 면접 준비, 채용 연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기업 발굴을 시작으로 사전 면접 교육, 기업탐방, 취업 토크 콘서트, 동행 면접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등 모두 단계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무와 근무환경을 체험하고, 구직서류 작성과 면접 준비, 채용 연계까지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첫 일정은 9일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탐방으로 시작했다. 대립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연계 기업탐방 페스타'를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앤씨(주)와 (주)오야, 한국자제(주) 등이 참여해 자동차·기계와 반도체 생산 현장을 공개하고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탐방 페스타는 하반기에도 계속 된다. 오는 9월에는 농생명·식품 분야, 10월에는 관광·문화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와 학생들의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대상은 도내 직업계고 취업희망 학생 200명이며, 7월 프로그램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8개 학교 학생 43명이 참여한다.

오지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기업탐방 페

스타는 단순한 기업 견학을 넘어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 채용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호원대 H-산업보건헬스사업단,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개최

간호학과 1~2학년생 대상

어르신 건강관리 등

참여형 프로그램 전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앵커(RISE)사업단 H-산업보건헬스사업단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칠호초마을에서 간호학과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보건으로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해 예비 간호사에게 필요한 실무 역량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활동 △마을 환경 및 안전 개선 △간호사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인 9일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나상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세라밴드를 활용한 어깨관절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어르신들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다운 간호사로 성장하는 작은 시작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간호 전문직의 가치와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앵커(RISE)사업단 H-산업보건헬스사업단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칠호초마을에서 간호학과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칠호초마을 일대에서 환경 및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마을 골목과 생활 공간을 정비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성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참여 학생들은 대상자 중심의 간호 실천 역량과 협업 능력을 키우며 미래 보건으로 인재로서의 기초 역량을 다지게 된다.

홍지연 H-산업보건헬스사업단장(간호학과 교수)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동체 의식과 현장 실무 역량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며 "예비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은 필수적인 만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과 실천을 이어가며 한 단계 더 성장할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앵커(RISE)사업단 H-산업보건헬스사업단은 '지역 정주형 보건·헬스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국립군산대-호주 멜버른대

해상풍력 분야 기술 교류회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김강주)는 지난 7일 멜버른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UoM)와 호주 현지에서 해상풍력 분야 기술 교류회를 실시했다.

멜버른대학교는 지난 1853년 설립된 호주의 대표적 연구중심대학으로 국립군산대와는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분야 공동 교육과 연구 추진 관련 업무협약 체결된 바 있다.

이번 기술 교류회는 국립군산대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EIRC)와 멜버른대 ACOWE(Australian Centre for Offshore Wind Energy)를 중심으로, 각 학교의 대표적 연구 성과를 상호 발표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양 대학 간 기술 교류회에는 오진과 주 멜버른대 대한민국 총영사와 '호주 풍력에너지박람회 2026 행사'에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군산대 풍력에너지학과 이대용 교수는 "양 센터가 보유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타이어 레벨의 교육 및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감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호주 시장 초기 진출을 위한 진일보도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군산대 EIRC는 기후에너지 환경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난 2022년 4월에 설립된 풍력발전 분야 국내 대표적 연구센터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예체능 계열 대입 정보 얻고 싶다면?

전북교육청, 11일 전주비전대서 설명회 개최

2027학년도 입시전략·대학별 전형 정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체능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대학별 입시정보와 맞춤형 진학 전략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미술·음악·체육 계열 진학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계열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체능 계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별 전형 특성과 평가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체능 계열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입수험능력시험 성적, 실기 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 일반 전형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질적인 입시 정보와 준비 방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예체능 계열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주요 대학의 미술·음악·체육 계열 입학전형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또 계열별 입시 준비 전략을 설명한 뒤 학생과 학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강의는 미술 분야에 이영원 과천물목중학교 교사, 음악 분야에 정하나 탐박고등학교 교사, 체육 분야에 노동기 상원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맡아 최신 입시 동향과 준비 전략을 안내한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계열별 별도 상담 공간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질의응답을 진행해 입시 준비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접수한 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포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교를 격려하는 포상행사를 열고 체육 꿈나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오후 전주N타워 컨벤션웨딩홀에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및 유공학교 포상격려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감독교사, 학교장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38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808명이 참가해 금메달 7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6개 등 모두 6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교육청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우수 성적을 거둔 학교에는 최대 1,500만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메달을 획득한 학생 선수들에게도 메달 색깔에 따라 30~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